

# “미술관 만들어 1천만 관광도시 품격 높여야”

### 손상기 화백 26주기 심포지엄 '여수에 미술관이 왜 필요한가'

한 해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인구 30만여 명의 도시, 여수에는 없는 것이 있다. 여수에는 국내 중소 도시와 군 지역에는 꼭 1~2곳씩 있는 미술관이 없다.

이에 여수지역에 미술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1일 여수시 문예회관에서 열린 여수 출신 천재화가 고 손상기 화백 작고 26주기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미술관 건립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미술관 건립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 = 이날 심포지엄에서 경희대 최병식 교수는 “예향 전남의 자존심인 여수가 미술관이 전무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수에 미술관이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내 미술계 관계자들은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하고 지난해 1000만 관광객이 방문한 국제 해양관광 도시 여수에 미술관이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수지역 미술관 건립 필요성과 핵심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최 교수는 “여수와 비슷한 규모의 스페인 빌바오시(市)가 미술관 건립으로 수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 유치는 물론 개관 6년 만에 1조50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두는 등 도시가 완전히 탈바꿈했다”며 “도·시립 미술관 건립으로 여수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부족한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도 실현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술관 설립 방향도 제시됐다. 김찬동 한국 문화예술연구위원회 전문위원은 “최근 미술관 건립 추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계적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문화주도적 도시재생’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로 진행된다”며 “하지만 자칫 정체성 훼손과 지역민의 괴리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수만의 문화유산과 역사, 지역민들의 정서와 잘 부합한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립미술관 유치도 추진해야 = 여수에 미술관을 건립하는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최병식 교수는 “현재 여수는 도·시립 미술관 건립이 가장 중요한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도립 미술관이 유치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며 “유치위 발족과 더불어 전남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 여수의 경쟁력을 적극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도립 미술관 유치를 위해 여수시와



최근 여수시 문예회관에서 열린 손상기 화백 작고 26주기 기념 심포지엄에 참여한 김찬동 한국문화예술연구위원회 전문위원 등 문화 전문가들이 여수지역 미술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생전 손상기 화백의 모습.



손상기 화백의 자화상

### 도립미술관 유치 필수... 최적의 장소는 여수박람회장 배동신·손상기 등과 이순신 연계 대표 브랜드로 육성

### 靑문화전당·비엔날레와 유기적 연결 뎀 시너지 효과

지역적자원, 문화예술 관계자들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회 서정환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은 “배동신·손상기·배병우 등 여수 대표 작가들의 훌륭한 콘텐츠와 이순신 장군 유적 등이 전남 문화유산과 만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수에 반드시 도립미술관이 건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술관 위치 선정과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확보 문제 등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다.

여수시 박점숙 교육문화지원사업담당장은 “도립 미술관 건립은 민선 6기 여수시가 중점 추진중인 주요 시책이다”며 “최근 지역 미술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접근성·사후활용 효과 등을 감안해

여수박람회장이 최적의 장소로 꼽힌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장소 등 도립미술관 유치 관련 안건을 시민위원회에 상정한 뒤 의회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손상기 기념관도 건립 = 여수 출신 손상기 화백 기념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됐다.

평생 병마와 싸우면서도 예술혼을 불태웠던 손상기는 1988년 3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한국의 로트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06년 여수시민들이 모여 처음 발족한 ‘화가 손상기 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수차례의 전시회와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 손상기의 삶과 작품성을 국내외에

알려왔다. 이번 심포지엄도 기념사업회가 주관해 개최됐다.

최병식 교수는 “80년대를 대표하는 시대성, 불굴의 의지, 뛰어난 문학·화화 작품세계 등이 손상기 화백의 대표 키워드”라며 “유형처럼 생가를 복원해 기념관으로 조성하고 미술관 내 작품 전시와 도록 제작, 기념사업 등을 통해 손상기를 여수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문화유산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진현 광주일보 부국장은 “내년 개관될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비엔날레, 여수 등 남도의 훌륭한 문화유산이 유기적인 연결을 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용 손상기 기념사업회 대표는 “여수에 반드시 필요한 미술관 건립과 더불어 여수 출신 천재화가 손상기의 삶과 작품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념관이 조성되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대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박람회장 장기임대 방식 투자공모 전환을”

#### 여수시, KDI에 대안 촉구

여수시가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장기임대 방식 투자공모’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여수시는 3일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계획 변경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임하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사후활용의 입장과 요구사항 등을 담은 의견서를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여수시의 공식 입장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용역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박람회장 부지시설 매각이 무산되면서 기존 매각방식과 함께 장기임대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지난 7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의견서를 통해 여수시는 박람회장 정신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복합 해양센터 등을 우선 건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향을 장기임대 방식의 투자

공모로 전환해 줄 것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겼다.

여수시는 또 사후 활용은 엄연한 국가 계획이라는 사실과 박람회장의 선(先)활성화의 당위성, 캠프 위탁매각의 부당성, 정부의 재투자 불가임장에 대한 반론, 여수시 재산을 국가에 무상양여한 점, 박람회 유치부터 개최까지 30만 여수시민의 열정에 대한 무한의 가치 등을 강조했다.

매각대상 부지·시설 중 해양 관련 공공 시설 건립 예정지와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 부지, 국제관 시설 등은 사후활용 필수 시설이라는 이유로 매각·임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기임대 방식의 투자 공모로 사후활용 방향을 전환,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 내·외국 사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시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과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전남도, 여수산단 녹지 66만㎡ 공장부지 변경키로

전남도는 여수 국가산업단지내 66만㎡에 달하는 녹지를 공장부지로 ‘용도변경’ 승인을 해줄 계획이다.

전남도는 3일 “여수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공장증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르면 이번주 내에 해당 기업들이 소유한 녹지를 공장부지로 개발계획변경(용도변경) 승인을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15만7467㎡), 여천NCC(13만5050㎡), GS칼텍스(13만2683㎡), 대림산업(12만2950㎡), 한화케미칼(6만435㎡), KPX라이프(5만3045㎡) 등 여수산단에 입주한 업체 6곳이 보유한 녹지 66만1630㎡가 공장용지로 변경

경되면서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여수시는 업체별로 실시계획 승인 및 대체녹지 조성 계획을 확정한다.

해당 업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50%(추정금액 604억원)내에서 대체녹지를 조성하고, 2017년경 공장 증설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화학 등 정치산업 특성상 기존공장에 연접해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지만 녹지 외에는 산단내 가용부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산단내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산단 밖에 대체녹지를 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i@

### GS칼텍스기 축구대회 33개팀 참가 성료

여수지역 최대 기업 GS칼텍스(대표이사 최진수 부회장)가 여수시 축구협회와 함께 지난 1~2일 이틀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지역축구 발전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동호회 축구대회를 열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GS칼텍스기(旗) 축구대회’에는 여수 지역 총 61개 축구동호회 중 절반이 넘는 33개팀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청년부, 중년부, 장년부 3부로 나눠 토너먼트 경기를 펼쳤다. 청년부 우승은 그린 FC클럽, 중년부는 드래곤 FC클럽, 장년부는 종고 FC클럽이 차지했다. 우승팀에는 우승기와 트로피, 상금이 수여됐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GS칼텍스기(旗) 축구대회는 지난 2002년 첫 대회 이후 올해까지 매년 평균 여수지역 축구동호회 40여개 팀이 참가해 자유를 겨루면서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축구동호회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GS칼텍스는 특히 매년 대회 참가비를 여수 구별중학교와 미평초등학교 축구부에 전액 유소년축구 발전기금으로 전달해 축구 꿈나무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김병열 GS칼텍스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대표 기업으로서 축구대회 개최는 물론 지역민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히터,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씨온탕소독기

##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 2종**  
비탈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 2종**

**원적외선 히터 11종**

**대형 제습기 2종**

**이동식 에어컨 11종**

**범씨 온탕 소독기 5종**

**무등산업** (062) 372-7585 사·군 취급점  
010-3601-7701 선착순 모집

## 성황리 공개중

순천 최초 **수익형** 미니아파트 리가안

### 적게 투자하고 크게 누려라!

1억투자시 월160만원 수익!

**100** (신축) (신축) (신축)

생활편의·교통·문화·교육의 중심에 위치  
지상 2층의 하층정원 및 옥상(가정)의 옥상화실경관 무인택배시스템  
구. 순천민정원(박람회장) 1km내에 위치(순천민정원 조망권) 휘트니스센터

**1599-1129** [268㎡ 리가안에 주목하라]  
29㎡ 33㎡ 35㎡ 35.5㎡

방문고객 사은품증정

M/H 홈플러스 풍덕점 주차장 뒷편